

2022

하늘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김예원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
(요한복음 15장 12절)

ONLY WON

D R E A M Y 4 t h

"빛음을 마치며"

드리미학교를 처음 들어오면 진행하게 되는 "빛음" 과정. 이번 빛음 과정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신앙 교육이다. 교회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다녔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내가 신앙 빛음을 통해서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자리잡은 것 같다.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뗀 것 같은 느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 드리미 공동체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빛음을 마친 내 목표이다.

C O N T E N T S

사명선언문

Action Plan

신앙에세이

타임엔지니어링 감상문

언어빛음 감상문

정의 에세이

절제하는 삶의 원칙

공동 성결서약문

성결 에세이

평화 에세이

지역 연구 인물 인터뷰

문제해결 프로젝트

3P창의활동 계획서

빛음 2단계 소감문

미리 쓰는 '나는 배웠다'



ABOUT ME

김 예 원 (kim yewon)

2006.04.22

#하나님을_사랑하고

#음악을_사랑하는

#하나님의_자녀

#하나님을_알아가기_원하는

#드리미_4기생

#Love_God

#Only_Jesus

#I_am_dreamy

"사람이 넘치는
하나님의 음악인"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사명선언문 김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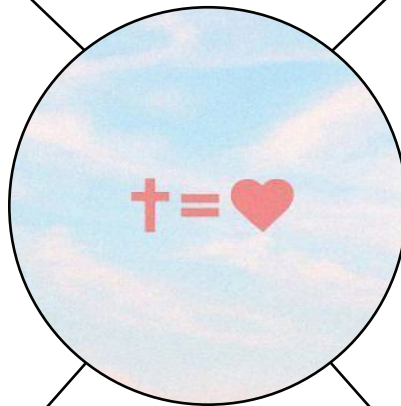
따뜻한 음악인

내가 하는 음악을 통해
다른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음악인이 된다.



사랑 많은 아내와 부모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남편과 아이를 대한다.



친구같은 상담자

모든 사람 한명한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사회에서 나누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



기뻐하는 선교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여러가지 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복음을 전한다.

Action plan

김예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음악인

1. 음악을 다양한 방면에서 학습한다.
2. 새로운 음악들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들어본다.
3. 내가 위로 받은 노래들을 기록해둔다.
4. 내가 위로를 얻거나 기쁨을 얻은 노래 가사를 기록한다.
5. 음악을 전공으로 하여 대학을 간다.
6. 창의활동으로 음악을 하고 음악의 다양한 것들을 공부해 본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정의 사람이 가득한 아내와 부모

1.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2. 매일매일 밤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기를 쓴다.
3. 롤모델이 되는 가정의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 해 본다.
4. 가정과 관련한 성경 말씀 및 신앙 도서를 읽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1. 밍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
2.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한다.
3.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주변 사람들에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상담자

1. 평소에도 많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준다.
2. 의문을 품기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준다.
3. 내가 들었을 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던 말들을 기록한다.
4. 하루동안 다른사람들의 말에 경청했는지 스스로 체크해본다
5. 내 얘기보단 남의 얘기를 더 들어준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1. 학교에서 하는 QT에 더 진지한 모습으로 참여한다.
2.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3. 주변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많은 대화를 한다.
4. 성경을 수시로 읽는다.

신앙에세이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한다. “모태신앙이면 믿음 좋겠네?” 라고 말이다. 나는 그런 말에 대답하지 않고 살짝 웃고 넘긴다.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며 혼자 자주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난 믿음이 좋은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졌는데, 나에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차라리 ‘아니다’라고 말하는 편이 더 쉬울 것이다.

나는 교회를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나갔다. 내 믿음이 성실했었기 때문은 아니다. 부모님이 교회 빠지는 것을 싫어하셨고, 항상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그래서 나에게 그 것이 의무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전부터 다녔으니까, 그것이 이유였다. 어릴 때부터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내 또래의 학생들이 없었고 예배도 예배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다. 그 예배시간에 나는 배운 게 거의 없었다. 매주 성경암송도 했는데 그냥 글자들을 외우는 느낌이었다. 1시간 가량의 어른예배 때 이해도 되지 않는 설교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 그 시간만큼 지루한 때가 없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즈음에, 내 신앙에 대해 문득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 신앙은 어느정도 성숙해 있지? 중학생 때 그 어느때보다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고등학교를 트리미학교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학교에서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은 내 신앙적 성장이다.

벌써 트리미학교에 온지 한달 반이 넘었다. 그 짧은 시간동안 나에게 크고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이번에 창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복음 사경회 때 창조과학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서 창조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나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 중학생 때는 학교에서 진화론 위주로 배워서 창조론은 더 믿기가 어려웠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진화론을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창조론도 믿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에 복음 사경회를 통해 강의를 듣게 되었고, 창조론에 대해 더 알게 되고 확실히 믿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제대로 믿는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 매우 감사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 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계기가 아닌가 싶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흔들린 적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사경회를 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신앙에세이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전, 내 믿음은 많이 흔들렸었다.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나도 죄인이다. 예전부터 들어온 말씀이라 그냥 너무 당연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딱히 별 생각이 없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선생님들이나 목사님 들께서 함께 따라서 기도하라고 할 때 외에는 딱히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에 와서 특강과 여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것 중 가장 큰 계기가 김선교 선교사님 특강때였다.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는 절대 잊을 수 없다. 정말 모든 학생들이 경악했던 고멜의 행동, 그런 고멜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 잘해줄 수 밖에 없었던 호세아. 어떻게 그렇게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라는 것. 놀랍기도 한데 인정할만도 하다.

나는 정말 크고작은 죄들을 짓는다. 신앙이 흔들린 적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많았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간다. 정직하지 못할 때도 그렇다. 내가 다른사람을 속이고, 내가 나 자신을 속여도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싫어하실까? 그렇지 않다. 고멜의 이야기에 서도 봤듯이,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

신앙에세이

3월 복음사경회가 끝나고, 4월에 고난 주간을 지냈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말씀을 전교생이 함께 묵상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포함하여 그 전후의 과정들을 모두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안타깝게 다가왔다. 예수님은 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 정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낮은곳으로 내려오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아는 기독교인이라면 죄의 문제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매우 자주 볼 수 있었다. 예전엔 그냥 교회에서 매주 보는 것이라 별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주 보게 되면서 이 십자가가 내게는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항상 생각한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할 죄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회개할 것들도 생각나지만 한편으론 감사하다. 이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구원의 주,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교회를 가면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다. 십자가를 보는 것 자체가 나한테 안정이 된다. 십자가를 보면 바로 예수님이 떠오른다. 앞서 말했듯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과 나와서 관계는 어떨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으로 오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과 십자가를 부인한 적이 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십자가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과연 내가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떠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십자가와 자신의 관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고 나의 주인으로 두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알지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십자가를 알고 자기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린 사람. 이 세 단계로 봤을 때 나는 두 번째인 것 같다.

신앙에세이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믿는다.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길 원하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내 주인 일 때가 대부분인 것 같다. 세 번째 사람처럼 신실한 사람으로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내가 주인인 단계에 멈춰 있을 생각도 없다. 쉽지 않은 길이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지만 앞을 향해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면 갖는 오해들이 있고 나는 나에게 들려오는 그런 오해들을 그냥 웃고 넘겼다. 나는 그 오해들을 현실로만 들어가고 싶다. 누군가 나에게 “모태신앙이면 믿음 좋겠네?” 라고 물으면 “네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지금까지 아무런지 않게 해왔던,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했던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 바램이 되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가고 싶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삶.

문득 머릿속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떠올랐다. 그 찬양의 가사를 천천히 생각해 보았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한다. 내 모든 것 내려두고 그들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하지 않는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진 것 같다.

나에겐 두 가지 소원이 있다. 첫 번째 소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나를 되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이,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다. 성경에도 사랑과 관련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19:18)” 라는 말씀이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다.

타임엔지니어링 소감문

시간이 뭘까? 이 질문으로 타임엔지니어링 강의는 시작되었다. 시간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그것이 뭔지도 이해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다. 알고보니 시간은 정말 놀라웠다. 시간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뭘지? 알고보니 사건의 흐름을 인지하여 그것을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없는 것이라고 했다면 처음의 나와 똑같은 반응이지 않을까 싶다.

이름이 타임 엔지니어링인 만큼 시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의 여러가지 특성도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며 시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번 시간을 통해 시간에 대해 어느 때보다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시간도 배우고 하나 더 자세하게 배운 것이 있다. "차원"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재는 정말 4차원이야."와 같은 말을 쓴 적이 있다. 그런 말을 쓰면서도, '차원이 뭘지?', '4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4차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타임 엔지니어링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복습한 내용이 차원이다. 0차원부터 5차원까지. 5차원이라는 것은 이번 수업을 하면서 처음 듣게 되었다. 알고보니 5차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뜻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느 차원도 아닌 5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차원에 대해서 배운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다.

"차원에 대해 배우면서 난 몇차원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 2~3차원의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같은 차원의 사람들과 내 또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내 또래 밖의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면이 아니라 공간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완전 3차원, 3차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우리는 살면서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3차원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3차원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고 3차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은 또 아니다. 4차원의 시각으로, 시간도 고려하며 살아갈 것이다.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도 생각하면서 살아나갈 것이다. 1차원의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까지 2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에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난 내가 3차원은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완전한 3차원은 아닌데 낮은 2차원은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타임엔지니어링 수업을 들으며 시간이란 무엇인지, 차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앞으로 드리미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알게 된 것 같다. 내가 몇 차원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언어 빛을 소감문

나의 언어습관을 바꾼 계기, 드리미학교의 언어 빛음이다. 언어빛음에서는 한국어 특징으로 시작하여 죄 이전의 언어, 언어 사용에 관한 성경 구절,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나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게 해 주었다.

언어에 관한 성경 구절은 한 번은 들어본 말씀 같았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에베소서 4 : 29)는 구절은 내 자신의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었다. 은어와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던 나한테 꼭 필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었다.

자기가 쓰던 말들을 포스트잇에 붙여 칠판에 붙이는 활동을 했는데, 나랑 겹치게 쓴 친구들도 보였다. 그것들을 읽어보시고는 뜻을 몰라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나 그런 말들을 보고 놀라시는 선생님을 보고 난 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처음엔 이걸 만들어봤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바른 언어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내 언어생활을 고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 소중하다.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식의 언어를 해주어야 한다.” 수업 중에 있던 말이다.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한다. 행동은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말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 못해본 것 같다. 소중한 것은 잘 아는데 친하니까 너무 편하게 비속어나 은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적이 많았다.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썼던 말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성하게 되었다. 어쩌면 나도모르게 내 주변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앞으로는 내가 자주 쓰던 말들,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은어, 비속어들을 안쓰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 한 명한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을 대할 것이다.

정의 에세이

요즘 사회를 보고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 난 0.5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도둑질, 폭력, 낮은 시민의식 등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 갖춰지면 안 되는 안타까운 의식들이 많다. 나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정의의 개념은 뭘까. 내가 배운 정의란 신뢰를 통해 서로 신뢰자본을 쌓아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정의는 관계의 문제이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정의가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배운 정의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도둑질과 정의의 개념

정의롭지 못한 대표적인 것이 도둑질이다. 도둑질을 간단히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무엇이든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한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도둑질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되돌아보면, 우리가 작은일로도 도둑질을 여러 번 했을지도 모른다. 도둑질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분식집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식집에서 다 먹고 나서 요금을 내지 않는 것. 그 요금은 그 분식집 주인의 것인데, 남의 소유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것들도 도둑질로 볼 수 있다. 이 도둑질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깎아내릴 수도 있다. 길에서 누군가의 지갑을 주웠는데 돌려주지 않는 것, 친구의 학용품을 쓰고 돌려주지 않는 것, 불우이웃 저금통의 돈을 빼서 군것질에 쓰는 것 등의 더 많은 사례들이 있다. 정의는 신뢰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깨질 수 있는 도둑질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이러한 정의는 도덕성과도 관련이 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부터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 모이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것과 연결하여 내가 배웠던 것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다.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총 6단계로 이루어져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도덕 기준이 높은 것이다. 1단계에서는 타율적 도덕 단계로, 단순히 처벌만 생각한다. 이런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나에게 어떤 처벌이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보상과 이득을 생각하고, 3단계에서는 그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고, 4단계에서는 어떤 법과 질서, 규칙을 어기는지를 생각하고, 5단계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사회적 계약을 생각한다. 6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인간의 생각 위에 있는 원칙이나 가치를 토대로 생각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과연 이 도덕 발달 이론에 따르면 나 자신은 몇 단계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몇단계인가. 나는 처벌만 생각하지도 않고, 나한테 있는 보상이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법을 어기는가 어떤 질서와 규칙을 어기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3~4단계의 생각을 할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바로 6단계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씩 노력한다면 5단계를 지나서 6단계의 도덕 기준을 갖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정의 에세이

성경적 정의의 개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옳지 않다 생각하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안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이 기준이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나였다. 하지만 이것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이 어렵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싶다.

희년과 예수님의 가르침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희년이란 안식년을 7번 세고 돌아오는 50년이 시작되는 해이다. 사람들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며 저마다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땅값의 기준도 희년에 있었다. 희년에 다가올수록 땅값이 싸진다. 희년에는 종들도 모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누가복음 4장 18~19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포로된 사람을 풀어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희년에도 노예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희년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한 것과 비슷하다.

정의롭지 않은 사회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는 부정부패, 역차별, 소외계층, 인권침해, 개인주의, 낮은 시민의식, 폭력, 빈부격차, 인종차별 등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은 원래 다 죄인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좋은 것들만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에 악한 본성도 가지고 있다. 한 나라를, 그리고 사회를 유지시키려면 정의의 기준은 꼭 필요하다. 나는 많은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낮은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자신이 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 사회에서의 한 명의 일원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자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가꾸어갈 일원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지낸다면, 앞서 언급한 부정부패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나의 다짐

나는 아직 정말 제대로 된 사회로 나가보진 못했지만,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의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사회에 대해 배우고 있다. 앞으로는 내가 배운 것들을 갖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나부터 노력할 것이다. 도덕적으로 판단할 것이 있을 때 양심을 토대로 생각을 할 것이고 또한 판단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둘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 먼저 나서서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절제하는 삶의 원칙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서둘러 가지 않는 것도 헛되다."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항상 명심하라."
"화평함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다."
- 그리스도를 본받아(토마스 아퀴나스) 중에서 -

나에게 절제가 필요한 부분

쇼핑을 할 때 필요하지 않고 갖고 싶다는 이유로 충동구매를 한다.
시간이 많다고 느껴서 해야될 것을 하지 않고 노는 시간이 길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한다.
나도 모르게 은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다.
집중하다가 잡담으로 새게 되면 멈추기가 쉽지 않다.

빛음 활동 중 삶에 도움이 된 활동

언어 빛음을 통해 내 나쁜 언어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었다.
내몸빛음에서 건강에 안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음식들을 절제했다.
학교 신입생 예비가정 과제에서 과자와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런 해로운 간식들을 절제하게 되었다.
절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절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바인더 사용하는 것을 배워서 플래너를 쓰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를 보냈다.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말하기
화가 나거나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속으로 셋을 세며 내 마음을 진정시켜 보기
물건을 살 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고 구매하기
음식을 먹을 때 살짝이라도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면 절제하기
해야할 일부터 하고 남은 시간에 놀거나 다른 일들 하기

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알고 불경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
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
성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지 않
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
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
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
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프리미학교 4기생 김예원

성결 에세이

살아가면서 성결이라는 말을 얼마나 들어봤는가? 난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번에 학교에서 성결에 대해 배우면서 성결과 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배운 성결에 대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성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성결

성결이란 무엇일까? 나는 성결을 하나로 정의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전적 정의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사전적 정의로 성결을 모두 설명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내가 생각하는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보면 내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인 청소년들의 성결하지 못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외모지상주의, 청소년 임신, 청소년 자살 이 세 가지가 떠오른다.

성결과 관한 문제점

외모지상주의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가장 대표적인 성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 외면만 신경쓰다보니 내면을 가꾸지 못하게 된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고 하셨다. 이처럼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고 내면을 가꾸는 데 신경을 써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청소년 임신과 청소년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하여서, 자기 몸을 거룩히 하지 못하고 생각을 거룩히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청소년이라고 안심할 것도 아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도 가장 위험한 연령대가 아닐까?

이처럼 내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우리들 한명한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게 가꾸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성결한 것은 중요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더 내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내 안의 성결

성결을 배우고 나니 문득 궁금해졌다. 내 삶에서 성결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내 삶을 되돌아봤다.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할 수 있다. 난 '나' 밖에 몰랐을지도 모른다. 내 인생은 나 하나만을 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도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이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믿음의 정말 좋지 않은 이상 나와 같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내 삶의 기준도 나다, 그리고 나였다. 오로지 내 생각을 믿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이견 옳지 않다 생각하면 옳지 않은 것, 단지 그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만큼 깨끗하지 못한 나를 믿고, 나를 기준으로,

성결 에세이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 과연 그것이 옳은 삶일까? 난 옳은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판단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할 때도 있다. 예전을 돌아보면 그런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다. 내가 기준이 되어 나의 판단대로 했다가 경험하고 보니 옳지 못한 판단일 때가 없지 않았다.

하나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어린 시절의 일이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너무 피곤한데, 교회도 가기는 해야겠고 해서 내 안에서 갈등이 매우 심했다. 정말 나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선택한 것은 부모님만 교회에 가라고 하고 집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묻지 않은 오로지 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 날 아침, 가정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 결국 교회를 가기는 했다. 하지만 가는 동안에도 차 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내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부모님과 나의 사이, 분위기를 흐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이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이런 결정을 했었을까? 비록 어린 시절이었지만, 지금 그 때를 다시 생각하면 정말 회개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례 외에도 내가 기준이 되었던 크고 작은 판단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내 몸, 생각과 행동에 대해 성결하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결하라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과 같고 거룩하라는 것은 죄와 분리된다는 것인데, 나는 죄를 달고 사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요즘엔 회개할 것이 생기면 매일 밤마다 빼먹지 않고 기도한다. 또한 겉으로는 어떻게 몰라도 생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나쁜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죄에 포함인데, 나를 돌아보면 나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다. 생각 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지켜 나간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숨어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찾아내어 쓰신다고 들었다. 하나님앞에 내가 순결해야지, 성결해야지, 내가 내 생각과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고 생각해본 적은 잘 없었다. 내 생각과 행동이 성결해질 필요가 있구나를 느끼게 된 것 같다.

성결을 배우고 나서

성결을 배우고 나서 위에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고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알 수 있었다. 난 정말 나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시간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나도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그것도 주일만 한정인 것 같다. 사실 이정도면 나의 하나님과 내 신앙심은 주일에만 생기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트리미학교에 오고 많은 신앙교육을 받으며 매일 밤 자기 전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때마다 감사, 회개,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잔다. 근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단인지, 내 인생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도록, 주일이 아닌 평상시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내가 말한 이 기도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기도로 끝내지 않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들어오게 해서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의 기준은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겨볼 것이다. 또한 맨 처음 내가 생각한 성결의 정의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언제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노력해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평화 에세이

사람이 있어서,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주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친구든, 가족이든, 선후배든, 한번씩은 자신과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민도 해봤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애랑 안 싸우고 잘 지낼 수 있지?”라는 식의 고민들. 이번에 내 주변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평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이상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해봤을 것이다. 그리고 느껴봤을 것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려고 하는 것이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그렇다면 사람의 관계란 뭘까? 사람의 관계란 서로를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라고 한다. 또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한다. 다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관계는 쉽게 맺어지지 않는 관계이다. 어느 누가 쉽게 다른 사람의 심은 모습까지 감싸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나라면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을까? 나도 아직 그 정도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나도 누군가를 싫어해본 적이 있다. 그 누군가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나랑은 많이 달랐다. 어떨 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냥 다 보기 싫고 듣기 싫었다. 난 내가 그친구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의 나에게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없었기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고,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계속 보였다. ‘살짝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도 했었다.

반대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많다, 정말 친한 친구이거나, 친척,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앞서 말한 그 사람들을 볼 때 나에게는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냥 수용하게 된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리고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

나에게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하다. 사랑을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본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마음에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노력이 없었다.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 마음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 했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 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려고 노력했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관계가 되어갔다.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서로서로 실천한다면 그 관계에서는 언제나 평화가 유지된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관계에서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깨져버린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내 주변의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 그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장점이거나 감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의 장점을 찾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쉽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찾은 걸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내 경험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 칭찬을 받는 입장에서 기분은 좋지만 칭찬을 해주는 입장에서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

내 주변 사람, 내 주변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에게 공감하려 노력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평화는 타인과의 관계와도 연관이 있다. 내 안의 사람으로,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평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지역 연구 프로젝트

1. 인터뷰 준비

담당자	전*영
직업	전 간호사 / 현 구급대원
목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간호사의 이야기 코로나 상황에서의 의료경험 의료 관련 일들을 통해 느낀 점 간호사/구급대원으로써 하고 싶은 말

2. 목표 달성을 위한 질문

질문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나 병원에서 하는 일이 있나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간호사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일도 의료와 관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일들을 해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미래에 의료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얘기해줄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

3. 인터뷰 정리

Q. 보통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나 병원에서 하는 일이 있나요?	환자한테 간호처치만 하는 줄 안다. 환경적으로 의료 폐기물 정리, 청소등 보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일도 많이 한다. 수술기 구 소독, 내시경기계도 직접 세척한다.
Q.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전신 보호복을 입고 cpr을 하는게 힘들다. 겨울에도 온몸에 땀으로 가득하다. 보호장구 착용 후 모든 환자 출동 나가고 환자 이송 후 소독하는 것과 같은 부가적인 업무들이 있었고, 병원선정도 안된 적이 있다. 병원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못가기도 함. 지금은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좀 나아짐.
Q. 간호사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일도 의료와 관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일들을 해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해온것들이 모두 의료직이다, 생명에 관한 것이라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을 질 수 있다, 생명과 관련되다 보니 엄청 엄격함, 한번의 실수로 그 사람의 예후나 건강상에 해가 될 수 있어서 항상 긴장하고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직업인 것 같다.
Q. 미래에 의료 관련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얘기해줄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간호사 : 하면 과도 많고 자신한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어서 엄청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의료쪽에 관심이 있다면 해보는 게 좋다. 구급대원 : 깊이 생각해볼길. 의료계쪽 구급대원을 오면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다. 체력적으로도 그렇다. 구급대원을 할려면 사명감과 체력이 필요하다. 구급대원이 하는 일을 잘 알아보고 주변에 물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후회없이 일할 수 있다.

4. 인터뷰 준비/진행 과정에서 배우고 생각한 점

배움 & 생각한 점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를 어떻게 많은 고민들을 했었다.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해나갈까, 인터뷰 답변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공감할 부분을 찾아내어 공감하면서 반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답변과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해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문제해결 프로젝트

1. 주제

학교 안내 시설 개선

2. 문제 개요

학교에 처음 오는 신입생이나 손님들이 학교 내 시설의 위치를 잘 모른다. 또 학교의 규모가 크고, 각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들이 없어서 길을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는 불편함을 겪는다.

3. 의미 있는 청중

학교에 처음 오시는 외부 손님 & 신입생들 등등 학교가 생소한 분들, 학교 시설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

4.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지식

1. 우리 학교 시설의 정확한 위치
2. 각 시설에 대한 용도, 유래 등 각 시설의 의미 등등의 정보
3.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
4. 코딩에 대한 지식
5.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장소가 어디인지

5. 문제 해결 방법 브레인스토밍

1. 학교 안내 소책자 제작
2. 학교 안내 대지도 설치
3. 표지판 설치
4. 학교 시설 안내 영상 제작 후 유튜브 업로드
5. 행사장에 있을법한 모니터에 학교 소개영상 재생
6. 안내 책자의 디지털화

6. 문제 해결 방법 정리

6. 안내 책자의 디지털화

안내 책자를 디지털로 제작한다. 웹사이트 하나를 만드는 형식이다.

그 후 각 건물 곳곳에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부착한다.

학교가 처음인 학생과 같은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학교 시설에 대해 알 수 있다.

또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하게 되면 백화점 안내 키오스크처럼 건물을 선택하여 그 건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3P창의활동 계획서

1. 활동명

활동명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
팀원	김예원
개요	피아노를 칠 때 사용되는 코드들을 가장 간단한 것부터, 반주에 많이 쓰이는 코드들까지 익혀보고 연습하며 연주해 본다. 코드 숙지가 되고 나면 빠른곡과 느린곡들을 많이 연주해본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멋진 연주를 완성하여 영상으로 제작한다. 피아노에 대해서 더 알아감으로 찬양팀에 서게 될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더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치는 그 피아노 소리를 통해 다른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의미있는 점	피아노나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드림이 공동체, 하나님

2. 자료 & 재료

자료 & 재료	피아노, 피아노 교재, 노트, 필기구, 학습 영상
------------	-----------------------------

3. 내용 및 활동

내용 및 활동 (주차별 계획 포함)		
내용	피아노의 기초, 영어 게이름으로 이루어진 코드들부터 배우고 익히기 시작해서,코드 악보에 가장 많이 나오는 코드들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한다. 모든 코드들이 이해가 되고 연주가 될 때 즈음에는 반주에 들어간다. 반주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고, 느린 곡 반주법과 빠른 곡 반주법, 다양한 박자의 곡들 반주법을 익혀 마지막엔 자신이 원하는 곡을 직접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게 된다.	
주차별 계획	1주차	기본 코드 익히기(C~B)
	2주차	7코드 익히기
	3주차	m 코드 익히기
	4주차	m7 코드 익히기
	5주차	M7 코드 익히기
	6주차	sus4 코드 익히기
	7주차	add9 코드 익히기
	8주차	dim 코드 익히기
	9주차	슬래시(/)코드 익히기 및 반주법 배우기
	10주차	잔잔한 곡 연습
	11주차	빠른 곡 연습
	12주차	곡 선정 및 연습
	13주차	연습
	14주차	연주 영상 촬영 및 제출

빛을 2단계를 돌아보며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빛을 2단계를 통해 깨달았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이다.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게 살아가느라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잘 없다. 학교, 학원, 그리고 많은 숙제들, 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사실 이건 핑계일 수도 있다. 그저 내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었던 대표적인 것은 빛을 - 칭찬사전 시간이었다. 밴드 학생들의 칭찬을 하나하나씩 써 주는 활동을 했다. 친구들이 나에게 써준 칭찬을 꼭 읽어보았다.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칭찬해준 친구도 있고, 내가 알고있던 나를 칭찬해준 친구도 있었다. 기억에 남는 칭찬은 "대화할 때 잘 맞춰준다, 모든사람을 편견없이 웃으며 대한다." 라는 칭찬. 이 칭찬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었고, 나를 그런 모습으로 봐준 친구들에게 고맙다. 그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나의 특징이자 장점을 찾았다.

또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다. "밝은 모습 안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칭찬이다.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나를 "밝은 아이", "활발한 아이"라고만 알고 있다.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리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드리미학교에서 지내면서 이 학교에서, 정말 제대로된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없지는 않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나를 정말 제대로 봐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잘 아는 친구들, 그런 나를 받아들여주는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내 주변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나를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드리미학교의 빛을 과정이 있었기에 나를 더 잘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나를 알아가는 것,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 중 하나이다. 내가 사명선언문에 썼던 것 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이 따뜻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닐까?

나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넘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미리 쓰는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나를 이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성공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낮은 곳으로 초대하심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낮아지는 것은 두려울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낮아짐으로써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음을
깜깜한 어둠 속의 빛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